

주권 권력에 대응하는 재현의 미학: 『로지나 노, 지나』와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전 용 숙 (대구대학교)
(jyongsook@daegu.ac.kr)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한 이란주의 『로지나 노, 지나』와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대상으로 주권 권력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경계 너머로 내몰린 인물이 과연 '경계 위에서 연결'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주자들에게 국경이라는 장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들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겪고, 이주 국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다. 국가라는 견고한 체제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주민을 외부인으로 규정하며 배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작가의 소설은 르포 서사와 추적 서사를 통해 경계에 서 있는 인물들의 정체성과 소속감, 미래에 대한 희망,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법적·사회적 상황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들의 내면적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로지나 노, 지나』와 『로기완을 만났다』는 경계에 선 인물들의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문학이 주권 권력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들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경계 위의 이방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와 인식 전환을 위한 문학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주제어 :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주권 권력, 경계에 선 이방인

I. 서론

문학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를 문학적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그 어떤 장르보다 사회적 불평등, 부조리, 권력 구조 등을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사회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문학은 “예컨대 카프카는 알레고리로, 제임스 조이스는 내적 독백으로, 카뮈는 무의미로, 베케트는 부조리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리얼리즘적 전통이, 다른 한쪽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모더니즘”(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79) 등의 경향으로 여러 방식을 통해 당대 문제에 접근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1세기 문학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소설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함께 분석한 것은 이들이 모두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근대의 산물인 주권이라는 시스템의 틀 안에서 배태되었다.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월경을 단순히 개인의 이동이나 탈출로 볼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 체제와 그 구조적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본다면 이는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문명의 전개와 함께 지나온 세계의 발자취를 보면 자의든 타의든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발생한 이주와 이민자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었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고 곧 민족의 정체성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흐름으로 배태된 이와 같은 이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주권을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조르조 아감벤(Agamben 2008, 177)과 같은 철학자들은 국가의 주권이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법의 외부로 밀려나며, 이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는 고대 로마 법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국가 권력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며, 법의 경계에서 배제된 인간으로 규정된다. 이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삶의 상태를 탐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법과 주권의 경계에서 배제된 존재의 탐구를 통해 국가의 생명정치(biopolitics)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문학에서도 국제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경계의 탈주와 월경에 관한 문제의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문학장이 1980년대까지는 계급과 노동 문제를 리얼리즘 창작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는 주류적인 글쓰기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이와 다른 성격의

글쓰기가 9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이런 흐름 중 하나가 계급과 노동 등의 사회 운동에 의해 배제되어 있던 여성, 난민, 북한이탈주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가지는 차별과 배제, 고난, 정체성, 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천착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뚜렷한 문학적 경향으로 자리잡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작품이다.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2011, 309)은 2011년 자신의 글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현재의 세계경제체계가 창조한 이주의 막대한 물결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맹독성 민족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까지 논할 수 있겠다. 내가 원거리 민족주의라고 칭하는 이 민족주의는 더 이상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본국의 영토라는 장소에 기대고 있지 않다. (중략) 인터넷과 전자금융, 저렴한 국제 여행은 이러한 사람들이 출신국의 정치에, 앞으로 그곳에 거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세계화라고 불리는 과정들의 결과로 등장한 주요한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며, 아시아와 유럽 민족주의 사이에 날카롭고 명쾌한 구분선을 그으려는 어떤 시도도 타당성을 완벽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믿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민족 단위의 수탈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분업 역시 국제적으로 민족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억압과 차별, 또한 그에 맞서는 저항마저도 여전히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탈경계인들은 민족과 민족 단위의 국가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탐구로 민족 국가와 국민 주권, 탈경계와 월경을 주제로 한 문학 진영에서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들도 상당한 연구 업적을 축적해 왔다.¹⁾ 본고에서는 먼저 이주노동자를 다룬 이란주의 『로지나 노, 지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란주는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현장 활동가이자 『말해요, 찬드라』, 『아빠, 제발 잡히지 마』, 『나의 미누 삼촌』 등의 집필을 통해 문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노대명(2003, 512)은 이란주의 작품이 “정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과 배제, 감금된 사람들에게 대한 외면, 떠나는

1) 일례로 고인환(2008, 31~32)은 “이방인 문학은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적 삶이 국민국가의 영역 안에서 영위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방인 문학은 국민국가의 모순을 비판하는 동시에 근대의 메커니즘을 껴안아야 하는 모순된 운명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연남경(2012, 221-224)은 공선옥의 『유랑가족』, 김재영의 『코끼리』, 박범신의 『나마스떼』, 이명량의 『나의 이복 형제들』, 정도상의 『절레꽃』,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를 분석하면서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유입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정치적 주체로의 변모 과정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에 대한 야유'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외면하고 싶은 기억이나 반성을 위해 들춰내야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동현(2003, 98)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법과 문화는 내면화된 서구 숭배와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라고 말한 한 여성학자의 말이 사실임을 뼈아프게 지적하며 이란주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선택과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 논한다. 이란주(2007, 484)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는 “소수이든 다수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서로 문화를 주고 받으며 섞여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다문화 사회, 옳거나 그르다고 비판받지 않으나 인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가난하거나 풍요롭거나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중략)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평화” 등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다루는 작품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는 달리 이란주의 『로지나 노, 지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현 서사의 팝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또 다른 분석 작품인 『로기완을 만났다』는 북한 이탈주민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탈출을 도모하며 고국을 떠난 인물들에 관한 서사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와 맥이 닿아있다. 북한 이탈주민 소설 연구를 통해 양진오(2015, 352~353)는 “흔히 탈북자는 과거에는 국책 차원에서 반공주의의 정당성을 남한 사회에 선전하는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거나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에 희생되는 난민의 전형으로 재현되어 왔다. 그렇지만 최근 탈북자는 다문화, 디아스포라, 사회적 약자 등의 개념으로 그 성격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며 최근의 경향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이런 경향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로기완을 만났다』를 꼽으며 로기완을 “분단의 희생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생성하는 인물”로 분석했다. 한편, 김영미(2017, 29)는 이 작품을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중요한 것은 ‘로기완’과 ‘나’, 즉 탈북자와 그를 바라보는 관찰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감’이라는 개념 자체의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은 감정 전염이나 감정 이입과 달리, 타자와 자아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고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와 그러한 상황에 놓인 타인의 감정에 대한 상상,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감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의 자세를 통해 탈북자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개인적 공감이 확장된 형태로서 ‘연대’의 가능성도 드러난다”고 보며 『로기완을 만났다』가 고통의 차원을 넘어 연대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태호(2019, 38)는 탈북문화의 달라진 경향성에 주목하면서 “기존 ‘탈북 문학’이 보여준 ‘기아와 고통’ 중심의 ‘고난의 서사’와는 다르게 ‘탈북 서사’의 두 가지 이질적 표상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분위기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거나 회의하게 하는 문학적 전유의 두 가지 표상”이 나타남을 강조한다. 한편 황정아(2015, 67)는 『로기완을 만났다』가 탈북자를 어떤 ‘보편’의 자리로 옮겨놓음으로써 의도치 않게 “탈북자의 실상을 한층 대상화 하면서 그 실상에 스스로 연루되어 있음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하며,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한 진정성의 훈련은 무엇보다 특수관계를 제대로 감당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고는 이 소설을 “감각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경계선”에서 연결²⁾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권 권력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경계 너머로 내몰린 인물의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현실을 조명하고 그들이 과연 “경계 위에서 연결”을 성취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봄으로써 주권 권력의 실효성과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주노동자 가족의 정체성

호미 바바(Bhabha 2011, 10)는 『국민과 서사』(Nation and Narration)라는 저서를 통해 민족(Nation)이 서사(Narration)의 산물로 탄생한 역사적인 관념일 뿐이며, “서구에서 민족은 정치적 사상과 문학적 언어의 전통에서 출현한 하나의 강력한 역사적 관념”³⁾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바바에 따르면, 근대 민족국가는 생물학적 근원이나 실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상상된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사회적 생활의 재현이자, 문화적 의미 작용 체계”(2011, 11)로서 상상된 구성물에 불과하지만, 그 상상된 것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찰스 테일러(Taylor 2010, 43)는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라는 말로 이를 더욱 구체화한다. 사회적 상상이라

2) “감각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경계선”(조해진 2021, 134)은 조해진의 소설 「경계선 사이로」에 나온 말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연진은 “감각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경계선”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경계선의 교차점에서 자신이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습을 경험한다. 이 경계선은 명확히 구분된 것이 아니며, 연진이 직면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이러한 경계선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계선은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인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그들의 존재와 선택이 더욱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본 역에서 국민으로 번역된 nation은 국가 혹은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근대적 형태의 국가가 민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용하여 쓸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nation을 문맥에 따라 민족 혹은 국가로 번역하기로 한다.

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들”을 뜻한다. 이른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사고, 정서, 관계, 심리, 무의식 등을 총괄하는 기제로서 사회적 상상은 기능하며, 이를 통해서만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상상된 것이지만 위력적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과 동료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대의 민족국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탈경계와 혼종의 다문화시대에도 여전히 상상 이상의 높은 경계를 쌓고 바벨탑을 건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2억 8,100만 명의 국제 이민자(김명수 2023, 323)⁴⁾가 존재하는 시대에 이민자 정책은 다양한 인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로지나 노, 지나』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인 1998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으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1998년 IMF까지 겪으며 힘겨운 일상을 살아낸 현실을 재현해 낸 르포소설⁵⁾이다. 연수생제도(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 1993년 도입, 2007년 폐지)를 통해 입국했으나 IMF 시기 외환 위기와 함께 기업 부도 사태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 제도로 소속된 회사에서 도망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착취를 당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저임금으로 잔업까지 도맡아 하던 그들은 체류국의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품 속 로지나의 아빠는 제약(制約)이 크면 클수록 ‘불법체류자’도 늘어난다면서, 제도가 이주노동자에게 소속된 회사를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로지나는 산업연수생인 아빠를 따라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된 방글라데시 소녀다. 2003년에는 ‘EPS-고용허가제’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때 방글라데시가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방글라데시 노동자 유입도 더 활발해졌다. 엄마는 방글라데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0년 당시 정치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야당을 지지하다가 반대쪽 지지자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월드컵

4) 세계 이주 보고서에 드러난 2021년 기준 이민자 숫자이다. 김명수는 이민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경제적 기회나 사회복지를 위한 이민이 많다고 보고 있다(김명수 2023, 323).

5) 르포 소설(Reportage Novel)은 르포르타주(reportage) 서사를 기반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 장르다. 이 장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다루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에 기반하여 서술된다. 이렇게 르포 소설은 문학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며, 사실과 허구를 결합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건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며 더욱 진실성 있게 주제에 접근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12. 참조).

비자를 받을 무렵 엄마는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계속 고민한다. 엄마가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인데, 엄마와 로지나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8000달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찾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좇아 결행한 이주는 시작부터 빚이라는 족쇄를 차게 한다. 이주에 드는 돈이 이주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여러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EPS 제도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온 친척 오빠와 아빠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달라진 점도 있어. 내가 올 때만 해도 연수생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은 한정돼서 브로커에게 뒷돈을 많이 줬지. 그런데 이 브로커들이 다 썩어 가지고 돈을 많이 준 순서대로 보내는 거야. 나도 5000달러나 줬다니까. 다 빌려서 마련한 돈이지. 첫 월급으로 39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 월급 받아서 5000달러 갚으려면, 다른 데는 한 푼 안 쓰기도 1년이 더 걸리는 거지. 나는 월급 못 받고 중간에 쉬고 해서 3년 넘게 걸렸어. 진짜 나쁜 놈들이야. EPS에는 그런 게 없어졌다던데, 너는 얼마 들었냐?”

“한국어 배우고 비행기 표까지 합쳐서 2000달러 좀 넘었어요.”⁶⁾ (123)

경계를 넘는 일은 이렇게 이미 시작부터 힘겹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하지만 경계를 넘어 이주하는 존재에게 국가라는 장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들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여러 폭력적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주 국가로부터 환대받지 못한다. 국가라는 견고한 체제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주민을 외부인으로 규정하며 보호에서 제외한다. 소설은 끊임없는 차별 속에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 EPS-고용허가제, 성실근로자 제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서술해냄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접근한다.

로지나의 아빠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이미 4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EPS-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국해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이 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두려워하여 자살 하는 등의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아빠, 강제 추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강제 추방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28)라고 아빠에게 묻고 있는 로지나의 말에서 제도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느끼게 된다. 로지나와 아빠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강제 추방의 두려움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현대 사회에서 호모 사케르는 법적,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상징하며, 그들의 생명은 ‘벌거벗

6) 기본 텍스트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

은 생명(bare life)’으로 간주된다.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 개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지니지 못한 채 생명체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가지는 지위와 체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그들이 한국 노동자가 된 이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줄곧 놓여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생명이 법적, 정치적 권리로 보호되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일 뿐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로지나도 귀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대 사회에서 법적,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이민자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순식간에 들이닥쳐어. 숨기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냥 막 잡아채는 거야. 글마들 무섭데! 비자 있는 애들까지 다 잡았다가 나중에 신분증 확인하고 풀어 주는 거야. 여기 저기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잡히고, 썩난리도 아니었지 뭐. 하도 거칠게 굴어서 한마디 했더니 글마들이 뭐래는지 아나. 벌레 같은 놈들이라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벌레같은 놈들이라니! 허, 참!”(141)

로지나의 삼촌이 일하는 회사에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쳐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진다. 검은 조끼를 입은 단속반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막무가내로 끌고 간다. 단속반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비자가 있는 사람들까지 일단 체포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벌레 같은 놈들”이라고 비하하며 거칠게 대한다. 법적인 차별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오는 차별을 합리화한다.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는 줄지에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인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벌레’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인권의식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아직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으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이라는 테두리를 그어놓고 그 테두리 밖의 존재들을 타자로 만들어내는 폭력의 힘.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만들어낸 이러한 폭력은 이민족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혈통주의에 대한 숭배”(김동현 외 2003, 96)로 이어져 타자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환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한계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회적 제도의 한계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하고 중층적인 차별과 폭력을 양산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한국 역사를 배울 때는 ‘그저 그랬구나’하고 무심히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니 숨이 멈출 듯 긴장되었다. (중략) 아저씨는 내 눈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역사를 잘 기억하라고. 나는 조그만 소리로 네, 라고만 대답했다. 말을 길게 했다가 내 뺨뺨이 서투르다는 것을 들킬까 봐 겁났다. (중략) 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자꾸 앞에 나섰는데, 방글라데시 말이 부족하니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른스러운 척하려고 애썼지만 별령거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느라 힘들었다. 자부심이라는 말과 숨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며 지나갔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기억은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았다. (111~112)

주로 이주한 아이의 경우 학교라는 교육제도 내에 진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이주 국가의 언어장벽으로 학업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출신 국가와 이주 국가의 언어 사이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기억에 상처로 각인되고 이는 아이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린 로지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사이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성장한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다니게 된 로지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다.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공동체로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한 사회,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인 또래 커뮤니티에 소속된다는 것은 차별받지 않는 것, 평등해지는 것으로 한 국가의 제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주 아이들에게 입학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로지나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성장하고 사회화된 과정에서 이주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자녀와는 또 다른 배경적 특징을 보인다. 이들의 경우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불화나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 쉽다. 특히 이들은 10대 이후 청소년기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제와 함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박영준 2016, 313) 겪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로지나는 학교를 중퇴한다. 아빠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실업, 엄마의 자궁근종으로 인한 허리 통증, 동생 라주의 좌절 등의 일련의 사건은 대학까지 가겠다고 소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다.

로지나의 동생 라주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다. 방글라데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 속에서 성장한 라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잘 자란다. 그런 그에게 수시로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라주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겼던 라주에게 비자 문제는 작은 걸림돌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은 라주를 좌절시킨다. “라주는 어린이집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취학 통지서를 못 받았다. 꼬마들이 그런 것까지 다 자랑하는지 혼자 시무룩해져서 집에 돌아왔다.”(162) 라주는 학교에 다니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자 하지만, 주변 환경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혼란은 가중된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다니게 된 라주는 “학교에 다닐 생각에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다. 키가 이따만큼 커지면 군대에도 갈 거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기로 했다. 크면 알겠지 뭐!”(164) 기대, 설레임, 소속감에 대한 열망, 긍정적 미래,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소망 등 실현불가능한 동생의 꿈을 옆에서 지켜보는 로지나의 모습은 담담하고 냉소적이어서 더 큰 비극적 정서를 자아낸다.

라주가 예닐곱 살 때 TV에 나온 광고 한 편을 보고 로지나와 나눈 대화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가 겪는 혼란을 잘 보여준다.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 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156)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권리, 의무는 국적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이 광고는 라주에게 뜻밖의 희망이 된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자신에게 해당될 리 없는 이 광고를 보고, 자신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치, 세종대왕, 독도, 축구’와 관련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로지나는 라주에게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주노동자 가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나는 광고가 원망스러웠다. 그런 광고까지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아빠를 둔 아이가 외톨이로 자랄까 봐 되게 걱정인가 보다. 그러나 우리같이 하찮은 외국인은 죽든 살든 상관없었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라주는 아무리 김치를 잘 먹고 세종 대왕을 존경해도 절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157). 로지나의 태도는 단순한 현실 설명을 넘어,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기 쉬운 다른 형태의 다문화 가족을 부러워할 만큼 사회는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 가족이 스스로를 “죽든 살든 상관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라주의 순수한 열망과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좌절과 슬픔은 그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한국에 사는데 왜 누구는 한국 사람이고

누구는 방글라데시 사람인지” 어린 라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말해주는 가족들에게 “라주는 신경질과 짜증으로 응했다. 자기 피부색을 저주했고, 그렇게 낳아 준 엄마를 원망했다”(158). 라주는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거부하고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싶어하지만, 피부색과 인종적 배경 때문에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또 하나의 사건은 태권도와 관련된다. “라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보내 달라고 노래를 불렀다.”(207) 마음 좋은 관장의 호의로 원비를 면제받고 태권도장을 다니게 된 라주는 태권도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라주는 승급 심사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심사에 응시할 수 없게 된 라주는 좌절을 겪고, 이후 태권도장에 가지 않게 된다. 가족은 라주가 태권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라주를 지원하려 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 자신이 틀림없는 한국인이라고 우기던 라주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법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긍정적 미래를 꿈꾸며 친구들과 같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아이에게 큰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라주로 하여금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족이 모두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때 라주는 한국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라주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라주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미래에 대한 희망,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법적·사회적 상황 등에서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서 있는 인물로서 결국,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에 홀로 남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다.

『로지나 노, 지나』 속 이주노동자 가족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고통, 상실감과 자괴감,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과 무시,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시선 등은 한국사회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종주의에서 연원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은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부끄러운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감벤(Agamben 2009, 17)의 말처럼 “주권의 감춰진 토대를 구성했던 벌거벗은 생명이 그동안 도처에서 지배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 버렸다. 이주노동자 가족의 추방에 대한 공포와 노동 현장에서의 착취와 억압, 인종적 편견과 차별 등은 더 이상 그들에게만 가해지는 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 노동자 계급,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 에 가해지고 있는 만연한 차별, 편견, 억압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발가벗겨진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 인종주의에

대한 직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상기시킨다. 이 과제는 이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로지나’가 한국인과 동등하게 ‘노지나’로 불리며 - ‘노(No) 지나’가 아니라 -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르포서사 형식을 통해 작품은 이주민 가족의 실제 경험과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로지나와 라주가 겪는 갈등과 고통은 단순한 허구가 아닌, 많은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한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로지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상기시키며, 공존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작품은 단순한 서사적 구조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Ⅲ. 초국적 자본 시대의 난민 문제

이 장에서는 또 다른 경계에 선 존재를 다룬 문학작품인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로기완을 만났다』는 북한 이탈주민 이야기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북한 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법률은 1997년 7월 14일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민’, ‘새터민’ 등의 용어로 사용되다가 현재의 법률적 용어인 ‘북한 이탈주민’으로 정착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으로 입국한 이탈주민은 “2023년 6월 기준 누적 합계 33,981명”(구지은 외 2023, 538)에 달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탈북 문제”는 ‘탈경계의 상상력’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시대에 난민과 이주의 문제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민 국가의 경계를 다시 사유하게 한다. (중략)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분단 극복 문제의 일환으로 탈북자 관련 문제를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오태호 2019, 39)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분단 극복의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로기완을 만났다』⁷⁾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그리고 이어 국내가 아닌 유럽으로 월경한 북한 이탈주민 이야기다. 북한 이탈주민의 월경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이며, 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한다. 소설은 한 방송 작가의 시선으로 북한 이탈주민인 로기완의 행적을 쫓는 추적서사⁸⁾의 특성을 지닌다. 방송작가에 의해 임혀지는 로기완의 일기에는 탈북과 탈북 이후 순탄치 않은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로’는 연길에서 오랜 기간 숨어지내다 브뤼셀로 망명하게 된다. 연길에서 로는 불법체류자로 체포될 위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숨어지낸다. 로에 비해 위험이 덜한 그의 어머니는 식당 일, 노래방 도우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어느 날 느닷없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사망하게 되고 로는 살기 위해 연길을 떠나게 된다. 브뤼셀로 건너가게 된 로는 연길과 브뤼셀 두 도시의 격차부터 실감한다. “결핍을 채우는데 급급한 도시”인 연길과는 대조적으로 브뤼셀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배타적이고 오만한 도시”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세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토록 풍요로운 세계 저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거대한 공동체가 분명 하나의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이 로는 믿어지지 않았다.”(40) 국가라는 시스템의 존립 근거는 그 구성원들의 안위와 생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절대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들의 물리적 안전, 경제적 복지, 문화적 동질성을 보장해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최종렬 2013, 183) 그러나 로의 조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거대한 공동체”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로의 의문은 국가의 존재

7) 『로기완을 만났다』 소설에는 한 방송작가와 지지도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며 그 증거라도 보여줄량인지 어느 날부터 얼굴 한쪽에 흑이 자라기 시작한 여학생 윤주, 그리고 이니셜 L로 호명되는 북한이탈주민 로기완, 로기완의 난민지위 획득을 돕는 박 이렇게 네사람이 중심 인물이다. 소설은 방송작가인 ‘나’의 시선으로 장애인인 윤주라는 인물과 북한이탈주민인 로기완에 대한 서술을 이어가는 구성이다. ‘나’는 장애인 윤주와 북한이탈주민 로기완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몽환적 여로를 결합시켜, 이들의 일상과 고난을 담담하면서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필자는 ‘주권 권력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경계 너머로 내몰린 인물이 과연 “경계 위에서 연결”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로기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8) 추적서사(narrative of pursuit)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그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며,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점진적으로 밝혀나가는 형식이다.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들의 행보와 변화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점과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며 인터뷰, 일기, 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서사를 구성한다. 이는 현실적인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가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독자의 감정 이입을 돕고 이야기의 몰입감을 높인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715. 참조).

9) 작가는 ‘로기완’을 ‘로’로 부르고 있다.

이유와 임무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다. 브뤼셀에서 마주친 거리 시위대를 보고서도 로는 생각이 많아진다.

로가 그날 거리의 시위대를 건너다보며 괴로워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발견한 뒤늦은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것도, 중국에서 공안의 눈을 피해 골방에만 갇혀 있다시피 살았던 것이나 어머니를 잃고 그 돈으로 이름도 몰랐던 벨기에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 역시, 그 모든 것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일 거라는 차가운 분노. 살기 위하여 살아왔을 뿐인데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쫓기고 숨어야 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한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것까지 송두리째 잃어야 했던 그 불가해한 시간들을 로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다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모이고 모여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때까지 체제 안의 사람들도, 바깥의 구경꾼들도 똑같이 침묵했다. 이제 더이상 그리운 마음 하나만으로 고향을 추억하는 달콤한 시간은 자기 삶에 없을 것임을 로는 깨달았다. (74~76)

로는 브뤼셀의 시위대를 보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느낀 고통과 분노, 그리고 탈북 여정을 되짚는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가난을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존에만 집중했으며, 정보의 제한과 생존 문제로 인해 체제 비판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로가 살던 마을에서도 가난은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옛날의 소박한 풍요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은연 중에 바라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한국은 북한이 가장 배고플 때 식량 지원을 주저했고 북한 정부는 고고하게 쌓아올린 ‘지상낙원’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100)했다. “거대하고 무정한 정치 게임”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개인들이고 국가 권력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중국에서의 오랜 기다림과 어머니의 희생과 죽음 서사는 로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많은 탈북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해외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탈주하는 탈북민들의 표정은 한반도 북쪽에서의 심각한 생활상과 힘겨운 생존 투쟁을 보여주고 있”(오태호 2019, 43)는데 “그저 어둠 속에서만 겨우 생존하는, 즐겁고 신나고 설레는 감각 같은 것은 모두 퇴화된 불우한 생명체처럼,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야 했던”(105) 로기완은 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로는 탈북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사실,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며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의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고통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동안 더 많은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비참한 현실은 “체제 안의 사람들”과 “바깥의 구경꾼들”의 ‘침묵’으로 인해 인식되지도 개선되지도 않는다. 브뤼셀의 거리 시위대는 로가 국가 체제의 실패와 이를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비극적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는 국가 체제의 이중적인 비윤리성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작가는 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도착한 브뤼셀에서의 로의 시선과 행적을 추적한다.

로는 벨기에 대사관을 찾아가라는 브로커의 말에 따라 대사관을 찾아가지만 대사관 직원은 그가 북한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어서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없다고 한다. 로의 어머니가 “강을 건너기 전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민증과 출생증, 로의 학교 입학증”(90) 같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는 모두 버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로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는 법적, 사회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법적 경계, 주권권력(sov^{er}ign power)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개인은 언제나 이미 국가 시스템에 예속된 존재이며, 국가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 내에서만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다. 국가는 국민과 비국민의 법적 경계를 확정하는 주권권력의 담지자이며, 경계의 바깥에 놓인 개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계의 바깥으로 내몰린 채 난민 자격조차 얻지 못한 완전한 이방인인 로는 풍요의 도시 브뤼셀에서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간다.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축복과 평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크리스마스 주간에도 로는 같은 방에 투숙한 외국인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고, 몸살에 시달리는가 하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다. 남역의 벤치에서도 노숙자들에 의해 쫓겨나 50센트를 내고 지하도 화장실에서 잠을 청한다. 남은 돈은 떨어져 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생활하던 로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 역에서 구걸을 한다. 배고픔과 추위, 병에 시달리며 모든 희망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붉은 나방을 쫓는 환각에 빠진다. 걸을 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는 음식 냄새와 붉은 나방 장식 속에서 잠을 청하며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다.

무력감과 체념에 빠져 더이상 탈출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그때 그는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의 삶이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 그리고 자신을 향한 과장된 경계심과 불필요한 오해로 채워질 거라는 예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다고 조소하면서”(140) 고아원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텃세와 폭력도 묵묵히 감내한다. “적어도 고아원에서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매 필요도 없고, 배고픔의 바닥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비참한 자세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테니까.”(141) 고아원과 같은 사회적 보호 시설에서의 폭력은 종종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폭력은 이러한 시설에서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가 보이는 폭력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이후 로는 고아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벨기에 내무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여기서 만난 평양 출신 남한 사람 ‘박’의 도움을 받아 난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국가를 버리고 온 이방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도 난민을 두 팔 벌려 반기지 않는다. 난민 지위를 준다는 것은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고 정착 과정을 돕는다는 의미이며 이 모든 것은 돈과 연결된다. 내무부 직원들은 어떻게든 로에게 난민 지위를 주지 않고 벨기에에서 추방하려 했고, 로는 최대한 솔직했으며, 그 사이에서 박은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했다.”(146) 우여곡절 끝에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 ‘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종결되었다면, 이는 북한 이탈주민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민 자격을 취득하여 망명지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서사로 읽혔을 것이다. 그러나 『로기완을 만났다』의 새로움과 비전형성은 두 번째 이주이다. 두 번째 이주는 브뤼셀에서 만난 그의 연인 라이카로 인해 이루어진다.

“난민 지위를 얻은 2009년의 스물 두 살 로와 만료기간이 지난 여행비자로 불법 취업한 상태였던 스물 한 살의 라이카, 그 둘이 함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로의 고독한 마음이나 언제 어디서 불법신분이란 것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라이카의 불안감이 모두 희석될 수 있었다는 것 (중략) 언어의 한계, 염세적인 세계관, 폐쇄적인 자의식 따위로는 검열할 수도 없고 검열되지도 않는 결속력으로 그들은 만났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은 언제나 단 둘 뿐이었다. 거인족의 후손 같은 브뤼셀 사람들 사이에서 키 작은 그 두 사람이 손을 꼭 맞잡고 걸어가면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세계는 지워졌고 사라졌다. 브뤼셀은 언제나 봄날이었고 2007년 12월의 아픈 추위는 다시는 로를 범하지 못했다.” (158~159)

그토록 염원하던 난민 자격을 얻은 것으로 로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낙관적 결말을 기대할 수는 없다. 어머니의 희생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 제한된 일자리와 처우 등 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이런 그에게 라이카는 소중한 존재다. 기한이 만료된 여행비자로 불법 취업 상태였던 라이카는 난민 자격 취득 전 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그녀에게 깊은 동질감과 공감을

느끼게 만든다. 고독했던 로는 그녀를 통해 위안을 얻고, 불안감에 고통받던 라이카는 그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라이카와 사랑에 빠진 로는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이유를 가지게 된 것인데, 그녀와 함께라면 외부 세계의 어려움과 장벽은 얼마든지 뛰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위태롭던 라이카의 불법 체류는 결국 단속에 걸리게 되고 강제 출국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외국인 수용소에서 도주한 그녀를 몰래 영국으로 보낸 후, 로 또한 그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식당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다. 로에게 영국으로 떠날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 영국행은 벨기에에 정부로부터 받은 난민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며 그건 곧 벨기에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과 정착민으로서의 안정감을 저버린 채 또다시 불법 이민자가 되겠다는, 그토록 불안한 삶까지 감수하겠다는 희생을 내포하는 것이었다.”(175)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불법 이민자의 신분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로의 영국행은 『로기완을 만났다』가 여타의 북한 이탈주민 서사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설정이다. 이 두 번째 여정은 로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라는 사실로 주목받는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로의 선택을 “안정된 신분이 아니라 순간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한 것”(김영미 2017, 17~18)이라고 적극적으로 로의 선택에 의미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알랭 바디우(Badiou 2010, 41)가 『사랑 예찬』에서 “사랑은 개인인 두 사람의 단순한 만남이나 폐쇄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축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의 사랑을 환기시킨다.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혹은 매몰차게 극복해나가는”(Badiou 2010, 43) 것이자, “온갖 고독을 넘어서 세계로부터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포획되는 것”(Badiou 2010, 113)이라는 말로 바디우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란 상징질서의 한계 상황에 맞섬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상징질서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자 ‘실재’와 같은 것이다. 로의 선택은 그가 거처온 험난한 여정을 다시금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위험과 고난은 국가의 주권 권력이 행사하는 비인간적 배제와 인종주의의 야만적 폭력으로 변함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제2, 제3의 로와 라이카가 생겨나는 한 그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둘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가 난민 지위를 버리고 라이카와의 영국행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로의 선택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차이를 횡단하는 진리’의 보편성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슷하게 “로기완의 난민 지위 획득이 박의 후원으로 다소 기적처럼 이뤄졌다면 로기완의 영국 밀입국은 철저하게 로기완의 선택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며 로를 “신자유주의 시대, 법적으로는 국민 지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나 인간관계의

진정성에 회의하는 젊은이들을 대변하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민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즉 로기완은 탈북자로서 긴급한 생존의 위기를 환기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이 관계의 진정성에 회의를 느끼는 동세대 젊은이들의 곁을 대리적으로 성찰케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며 로기완을 “신자유주의 시대 하에서 그 가치가 퇴색하는 인간적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양진오 2015, 362). 로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파악한다는 것, 이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그들을 세계 자본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비판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최소화함으로써 무한경쟁에서 낙오된 채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하위 주체들을 양산해 낸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국민들조차도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시키는데, 로가 처한 상황은 “법적으로는 국민 지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이 작품은 단순히 북한의 국가체제가 갖는 경제적, 이념적, 인권적 문제에 대한 각성을 환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근대적 국가 체제와 자본주의라는 확장된 문제의식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기완을 만났다』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주제를 통해서 ‘국가’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의 보편적 주제의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넘어 성찰에 이르게 한다.

추적서사의 형식을 취한 이 작품은 로기완의 일기와 자술서를 바탕으로 방송작가인 ‘나’가 로의 행적을 추적하며 로와 같은 탈북민들이 경계 밖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작가의 담담한 서술 방식은 북한 이탈주민의 실상, 그들의 희망과 좌절, 절망과 용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진솔한 목소리를 유지한다. 로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연민과 공감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 소외되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촉진한다. 영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두 사람의 선택은 난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로와 라이카의 사랑은 국가의 구조적 폭력과 인종주의로 인해 언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들의 여정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들에게 닥쳐올 위태로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가 시대의 불안과 위기를 돌파하고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면서.

IV. 결론

『로지나 노, 지나』와 『로기완을 만났다』는 르포서사와 추적서사라는 각기 다른 형식을 통해 '별거벗은 주체'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확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북한 이탈주민의 모습을 진솔하게 재현함으로써 주권권력의 폭력을 드러내고 탈경계 시대의 대표적 경계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권력은 물리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경제적 경계선에서도 작동한다. 이 경계선은 보이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지만, 실제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 두 소설은 이러한 경계선이 이주노동자와 북한 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나 난민 같은 경계에 선 이방인들은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적,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아감벤과 같은 철학자들은 사회가 기능하고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가 특정한 인종이나 성별 혹은 집단에 대한 배제나 차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경계에 선 이방인들이 일종의 부재효과로서 사회의 차별과 억압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인권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 사회의 인식 수준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나 난민과 같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문학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환대하고 이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형상화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근대를 특징짓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사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히틀러의 파시즘이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수준을 알 수 있고,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젠더와 인권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문제를 사유하는 방식을 통해 계급화된 자본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와 관련된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다룬 『로지나 노, 지나』와 난민이 되어 유럽으로 건너간 북한 이탈주민을 다룬 『로기완을 만났다』를 고찰하였다. 근대화, 자본주의, 식민주의, 냉전적 이념 갈등 등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주와 이민을 경험한다. 이들은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존재들로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 배제와 차별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정체성 등 주권 권력의 생산과 재생산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구실로 이주노동자와 난민 같은 타자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 『로지나 노, 지나』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산업연수생 제도, EPS-고용허가

제, 성실근로자 제도 등 이주노동과 관련한 제도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고충에 주목하고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의 위협에 시달리는 등의 노동 문제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이 겪는 제도적이고 인식적인 인종주의적 차별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조건과 노동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채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종적으로 경멸하며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천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경제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적, 제도적 불합리성과 반민주성, 사회적, 문화적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저에는 자본을 물신화하는 배금주의,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진 계급 갈등과 계급 차별이 놓여 있다. 천민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배금주의로 인해 가난한 국가 출신의 노동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인종주의를 배태하게 되고, 이들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도구주의적 인식에 머물게 만든다. 노동 계급과 노동자 일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은 이주노동자를 향한 인종주의적 편견과 결합하여 극대화된다. 국가 권력은 이러한 계급적 양극화를 해결할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 의식의 고취보다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일반화하는 시장사회화를 지지함으로써 자국의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무관심한 척 억압과 배제의 논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로기완을 만났다』는 북한 이탈주민 로기완이 탈북 이후 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서술함으로써 국가의 무능력과 이를 은폐하는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자국의 현실 그리고 그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북 난민의 행로를 추적하고 있다. 비극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한국, 유럽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로는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아 강제 송환의 위협에 처하고, 신분 문제와 외로움, 배고픔과 서구인들의 차별 등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민정책과 언어장벽 등의 시련에 직면한다. 천신만고 끝에 벨기에 난민 자격을 획득하게 된 로는 사랑하는 여인 라이카를 만나게 되고, 불법체류자인 라이카를 위해 함께 영국으로 밀입국하여 다시금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결심을 한다.

이처럼 경계에 선 이방인은 끊임없이 연결을 추구한다. 경계선의 연결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주 문제와 인간의 소외,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그들의 존재와 선택이 더욱 복잡한 맥락 속에서 형상화되고 이루어진다. 『로지나노, 지나』의 인물들이나 『로기완을 만났다』의 인물들은 끊임없는 연결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소외와 배제의 상황을 겪는다. 여기서 이들이 보여주는 경계선의 연결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다. 한국인 되기를 추구하나 끊임없이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로지나 노, 지나』의 인물들, 난민 지위를 획득하고도 다시 난민되기를 추구하는 『로기완을 만났다』의 로를 통해 우리는 법적, 제도적으로 난민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에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 권력이 허용하는 법적, 제도적 환대를 넘어서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조건을 사유하도록 촉구한다. 이처럼 이들이 느끼는 경계선의 연결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경계라는 것이 자국민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타자들에게 어떻게 억압기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각 인물의 이야기가 어떻게 더 넓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과 이탈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국경이라는 ‘장소 아닌 장소’, 곧 박탈과 추방과 배제의 경험들이 발생하는 ‘자리 아닌 자리’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업자들, 고정된 거처가 없는 ‘주민들’, 이주민들, 불법체류자들, 신분증 없는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자리바꿈’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한다”(최정우 2011, 225)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탈근대, 탈경계 시대는 국가간의 차별이나 억압이 없어야 하며, 인종주의적 편견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할 것이다. 국가, 민족, 민족주의에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기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함으로써 약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화합과 호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제도적, 문화적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기본자료

- 이란주. 2020. 로지나 노, 지나. 우리학교.
- 조해진. 2011.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참고자료

- 고인환. 2008.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 문학들 13. 심민안, 30~56.
- 구지은·조윤경.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문화와융합 45(11). 한국문화융합학회, 535-547.
- 김동현·김진석. 2003. [이 사람이 사는 법]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란주씨-말해요, 찬드라, 월간말 206호, 월간말, 96-99.
- 김명수. 2023.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한양법학 34(3). 한양법학회, 323-359.
- 김영미. 2017.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31.
- 노대명. 2003. 21세기의 유목민, 외국인 노동자. 황해문화 제40호. 새얼문화재단, 510-514.
- 박영준. 2016.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97-322.
- 베네딕트 앤더슨. 공원국 외 역. 2011. 서양 민족주의와 동양 민족주의 -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 뉴레프트리뷰 3. 길.
- 알랭 바디우. 조재룡 역. 2010.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 양진오. 2015.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
- 연남경. 2012. 다문화 소설의 탈경계적 주체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9. 현대문학이론학회, 221-224.
- 오태호. 2019. 2010년대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탈북 서사'의 새로운 양상 고찰. 우리어문연구 63. 우리어문학회, 37-66.
- 이란주. 2007. 우리는 모두 소수자. 황해문화 제55호, 477-484.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새물결.
-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양창렬 역. 2009. 목적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도서출판 난장.
- 조해진. 2021. 경계선 사이로, 환한 숨, 문학과지성사.
-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 최종렬. 2013. 지구화와 이방인들. 마음의 거울.
- 최정우. 2011. 한밤의 미학이 한낮의 정치가 될 때-왜 우리는 주체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사유해야 하는가. 문화과학 65, 214-2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아시아.
- 호미 바바. 류승구 역. 2011.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 황정아. 2015.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2).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7-69.

● 투고일: 2024.07.25. ● 심사일: 2024.07.28. ● 게재확정일: 2024.08.11.

| Abstract |

The Aesthetics of Representation in Response to Sovereign Power

Jeon Yongsook (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ovels *Logina No, Gina* by Lee Ranjoo and *Meeting Logiwan* by Jo Haejin, shedding light on individuals who have been pushed beyond borders by the system of sovereign power. It examines whether these individuals achieve ‘connection across boundaries’ amidst their circumstances. While a state’s role traditionally includes ensuring the safety and welfare of its citizens and promoting social order and prosperity, borders function very differently for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They often undergo violent experiences during border crossings and are not welcomed by their destination countries. The rigid structure of the nation-state categorizes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as outsiders, excluding them from leg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tections.

In this context, the works of these two authors deeply explore the identities, sense of belonging, hopes for the future, family relationships, and legal and social situations of individuals on the border through reportage and pursuit narratives. They vividly reveal the realistic problems and inner conflicts faced by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delivering powerful social messages to readers. *Logina No, Gina* and *Meeting Logiwan* illuminate the uncertain and unsettling realities of individuals on the border, demonstrating how literature raises issues regarding sovereign power. These works provide readers with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strangers on the border, reaffirming the role of literature in fostering social change and perception shifts.

〈Key words〉 Migrant worker, Refugee, National sovereignty, Stranger on the border